2026년 9월 04일(금) 구역예배 자료 **〈자기 재물인가? 하나님의 재물인가?〉 사도행전 4장 32~37절**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50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4장 32~37절(신193)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216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8월 30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교회의 모범,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따르고 지향해야 할 모습일까요?

**〈설교의 요약〉**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먼저 일치하고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계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독교 교리적으로,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이, 서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서로 정반대되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는,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허리띠 버클에는,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부리를 겨눈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는 습성은, 오래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 편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수5:13~14)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성도들 사이의 간극은 좁아지고, 점점 하나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재물 사용에 있어서의 관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음과 한 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의 재물 사용, 다시 말해, 경제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번역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사유 재산 제도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 제도는, 개인이, 토지와 자본 같은 재산을, 스스로 소유하고, 뜻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핵심 사회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사유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재물 사용, 이기적인 경제활동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어에, '가베(Gab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 재능,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에, '아우프가베(Aufgab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제, 임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뜻하는 '아우프가베'에서, '아우프'라는 말은, 영어로는, '애프터(after)'에 해당하는 말인데, '뒤에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물 뒤에 따르는 것이 임무라는 말입니다. 은혜 뒤에 따르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우리는 돈을 사용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과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위해 써야 할, 임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놓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재물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의식이, 자기 재물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바치는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믿는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 자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누기〉**

1.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2.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십자가 아래 기꺼이 내려놓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즐거움과 욕망 성취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며 돕기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도구와 수단으로, 돈을 잘 쓸 줄 아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